

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맺고 롯의 길을 걸으면 롯과 같은 결과를 맺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한호협 회원들 모두가 호스피스와 아브라함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상강좌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연 · 재 · 순 · 서

1. 생명윤리의 4대원칙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2) 악행 금지의 원칙
- 3) 선행의 원칙
- 4) 정의의 원칙

2. 환자 권리와 호스피스

3. 안락사와 호스피스

이것은 동기의 문제이다. 의사는 때로 어려운 결정들에 직면한다.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장치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체험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믿게 되면, 그는 이례적인 수단들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에 맡길 수 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환자 가족과 의사의 신뢰관계 속에서 의사들이 지난 세월동안 행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존엄성을 유지한 죽음"이다. 이것은 안락사를 단지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아니다.

필자는 내과 의사로서 중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기 암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수년째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혼수상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뇌사 상태, 말기 암환자 등 극히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의식이 있었던 때에 명시한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임종이 가까운 말기 암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 인공호흡기로 하루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이며 의료집착행위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무익한 치료는 반대한다.

3) 안락사의 대안 - 호스피스

물론 인간에게는 생명권과 아울러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도 캘커타 에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병들어 쓰레기더미 옆에서 버려진 채 죽어 가는 행여 환자들을 실어다가 따뜻하게 돌보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인 것이다. 자칫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존엄하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점이다.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존엄한 죽음이며 오늘날 호스피스운동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불치의 병으로 인한 임종이 가까워 올수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종교적 소망이 없는 경우엔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생명연장장치 등의 최신식 장비들 보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 통증을 적절히 조절해 주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치료인데, 대체로 호스피스 병동(종합병원 내의 특수 병동), 호스피스 전문병원, 혹은 가정방문(Home care)의 형태를 갖게 된다. 호스피스는 모든 환자를 거의 본능적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How should we then die?)'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소화시키며 영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이다. 일반 병원은 죽음을 의미 있게 맞고 준비할 환경이 못 된다. 막상 임종 환자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정신적 슬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죽어 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나 자살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와 육체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인적(全人的)이고도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호스피스야말로 참된 치료이며 복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역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운동이 좀더 활발히 전개되어 존엄한 죽음을 소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끝 - (자료제공 : 편집부)

NEWS 일반소식

새로 등록된 기관

충청 호스피스선교회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11-9
나자렛교회(소망의 전화)
- 대 표 : 이재광목사
- 전 화 : 042)638-0191, 639-0691
- 이메일: as23krkr@yahoo.co.kr
- 팩 스 : 042)639-4242

회원소식

광주C.C.C사랑의 호스피스

호스피스 교육

- 일 시 : 2003. 3. 3(월)~9(금)
- 장 소 : 동명교회
- 대 상 :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관심이 있는 분
- 등록비 : 학생 3만원, 일반 4만원
- 접 수 : 2003. 2. 24(월)~28(금)

겨자씨나눔선교회 호스피스

1. 자원봉사자 교육

- 일 시 : 2003. 3. 17~21
- 장 소 : 전주 아멘교회
- 문 의 : 063) 282-5546, 5548

2. 시설호스피스 아름다운 집 이전

- 소양면 신월리 1450평 대지에 70평 건물을 구입하여 2월중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리모델링 중임

대전(실로암) 호스피스